

병원간호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of Hospital Nurses

이 안 생¹⁾ · 윤 치 근²⁾ · 이 정 미³⁾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¹⁾,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²⁾,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조교수³⁾

목적 : 본 연구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우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병원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 본 연구는 서술적 단면조사연구로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69를 대상으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 조직의지지, 상사의 지지와 동료지지도구를 이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결과 : 간호사의 우울 정도는 '경증우울'과 '중요우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연령,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 따라 유의하였다. 우울 수준의 차이는, 결혼상태, 근무부서, 근무경력, 근무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다 3.1배(95% CI=1.4~7.2) 우울 수준이 높았고,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4배(95% CI=1.0~5.8) 우울 수준이 높았다. 5년 이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5년 이상 경력자에 비해서 2.1배(95% CI=1.2~3.5) 우울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간호사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간호사에 비해서 2.7배(95% CI=1.6~4.8) 높았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우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긴장 및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조성과 상황변화와 환경적응능력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관련 조직원들과의 인간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가족 및 지역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환경과 경력관리를 통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 및 부정적 심리문제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1) 한국직업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2년 5월 게재
2) 윤치근 Yoon, Chi-Keun, E-mail: ckyoon@wku.ac.kr